

엄마의 간절한 기도, 수능한파마저 녹였다

수험장 밖 학부모들의 길고도 길었던 하루

행여 정성 부족해 자식시험 망칠까 108배하고 또 하고 시험 끝나자 “고생했다” “고마워요” 얼싸안고 눈물도

‘201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오전 8시20분 광주시 북구 우산동 동신고등학교 교문에 서서히 단했다. 문이 닫혔지만 학부모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지난 12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해온 아들·딸들이 안쓰럽고 대견했다. 김모(여·46)씨도 그랬다. 김씨는 “혹시(아들)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씨는 “나도 긴장돼 다리가 떨리는데, 아들은 오죽하겠느냐”라며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치르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김씨는 힘든 시기를 버텨준 아들이 눈앞에서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교문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어머니들도 많았다. 한 시간이 넘어서야 김씨 등 어머니들은 떨어지지 않는 발을 무작사 등으로 옮겼다. 쉬러 가는 게 아니었다. 자식을 보낸 어머니들은 무각사에서 자식들의 시험이 끝날 때까지 108배를 올렸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평생 한 번뿐인 시험을 위해 바짝 긴장한 채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 뿐이었다. 어머니 100여명은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열드렸다가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장모(여·51)씨는 시험을 보고 있는 딸을 생각하며 108배를 올렸다. 등산복 바지 무릎이 닳도록 열드리

고 또 열드렸다. 이날 2시간30분간 장씨가 올린 108배는 모두 네 번이나 됐다. 다리 힘이 풀린 장씨는 잠시 휘청거리더니 이내 몸을 곧추 세웠다. 긴장하며 시험을 치를 딸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힘들게 버텨준 딸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더 눈물이 났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엄마도 울고 있었다. 그 옆에 있던 엄마가 휴지를 건네줬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절을 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장씨는 “재수를 하는 딸이 시험 며칠 전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대입에 떨어진 뒤 자신(딸)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말하는데, 너무 안쓰러웠다”면서 “딸이 함께 고생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는데, 가슴이 먹먹했다. 시험 끝날 때까지 딸과 함께 할 것”이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시험이 끝날 시각까지 108배를 하던 어머니들은 다시 학교를 찾았다. 5시10분 남구 주월동 대광여고 정문 앞에서 학부모들은 쏟아져 나오는 자식들의 얼굴을 찾았다. 흥분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을까. 긴장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며 손을 흔들었고 딸이 달려나왔다. 모녀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독였다. 딸을 맞이하는 어머니 얼굴엔 고마움과 뿌듯함이 가득 했다. “아들아! 고생했다”, “엄마·아빠 고생했어요”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대광여고에서 시험을 치른 재수생 정모(여·20)씨는 “지난 1년간 저보다 엄마·아빠가 더 고생하셨다. 매일 학원에 등·하교 시켜주셨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쉬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며 “저 때문에 잘 쉬지도, 놀지도 못하셨다. 가족들과 편히 여행이나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학부모 박모(여·49)씨는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딸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은데, 이제 마음이 흥분하다”며 “당분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هلگافنهؤ” 13일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 동아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هلگافنهؤ 표정으로 밝게 웃으며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교훈 잊었나... ‘시한폭탄 시내버스’

부품 교체 비용 아끼려 전복 예방 ‘활대’ 제거 운행 광주 업체대표 등 10명 적발

비용 절감을 위해 차량 전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부품(스테빌라이저)을 제거한 채 승객들을 실어날라온 광주지역 시내버스업체 대표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수익만을 좇고 안

전을 소홀히 하다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동부경찰은 13일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안전 장치를 해제하고 운행해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이모(40)씨를 비롯한 5개 버스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께부터 최근까지 시내버스 하체 바퀴 부분에 설치된 균형안

전 장치인 이른바 ‘활대’를 불법으로 제거하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활대는 차량 바퀴 부분의 좌·우 충격완화 장치를 잇는 부품으로 차량이 회전할 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안전 장치다. 활대가 제거된 차량은 급회전 시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커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광주 10개 시내버스업체 중 5개

업체의 버스 81대가 활대를 제거한 채 운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140만 광주 시민들이 안전 부품이 제거된 ‘도로 위 세월호’를 타고 다니는 셈이다. 경찰은 이들이 한 번 교체할 때마다 30~5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버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특히 해당 부품이 제거된 채 운행할 때의 위험성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놓은 상태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광주지검, 세월호 1심 판결 불복...기관장 등 8명도

검찰이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상당수 피고인들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익)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에 앞서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겠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 재판의)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양형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항소해 판단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라며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 “(판단의 문제를 놓고) 입증에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할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다. 평소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 제출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게 검찰 스타일이다.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한 7명도 대부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 많다. 그는 살인 혐의가 다진 동료를 내버려두고 탈출한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 서판 적용된 것과 관련해서도 “다친 동료를 보고 나오면 살인, 다친 승객을 안보고 나오면 살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살인죄를 판단하는 데 핵심 쟁점이던 ‘선장의 승객 퇴선 지시’에 대해서도 “언제 됐는지는 판결문에도 없고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 3자인 사무부 직원들은 (선장의 지시로 2등 항해사가 했다는 퇴선 유도 무전용)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또 “유사 사례가 없는 수사와 재판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라며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시한 것과 관련, “(판단의 문제를 놓고) 입증에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할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고도 했다. 평소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 제출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게 검찰 스타일이다.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한 7명도 대부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쌍용차 정리하고 유효”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해고 이후 5년간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맞붙어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계 하락,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화순에 떨어진 벼락 때문에...광주 때아닌 정전소동

○...화순에 떨어진 벼락때문에 광주에 때아닌 정전 소동.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50분께 광주시 전 지역에 0.1초간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일어나 북구 매곡동 부림아파트 등 아파트, 상가 건물 13곳 승강기와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

주공장 등 공장설비가 작동을 멈췄다는 것. ○...이날 화순군 춘양면 고인돌공원 인근 송전선로에 발생한 낙뢰로 순간 전압이 떨어졌는데, 시 관계자는 “광주 전 지역에 정전됐지만, 일부 지역 승강기에 압강하 현상이 일어나 북구 매곡동 부림아파트 등 아파트, 상가 건물 13곳 승강기와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광

www.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특수경매

- ▶ 배우면서 투자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2~3명 개인지도
- ▶ 경매사 자격증 발급
- ▶ 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쥬오천경매

H.010-3605-5000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4층-35평, 주택(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용 3억5000만 가, 보 2억에 월 270만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수리
- 우리중개사 H.P 010-8589-5500

- 29평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5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 77평형-20층 사무실 전용 창가코너, 최상층, 전망좋은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3억7000만원 정도 매매가-2억7000만원

문의 HP. 010-3180-8900